

본 논문은 삼하 7장 12-16절을 시적으로 변용시킨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석적 방법과 종교사학과적 연구를 통하여 다윗 언약의 신화적 구조를 부각시켜 신학적 자산가치를 부각시키며, 나아가 다윗 언약이 왕실의 정치적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약적 영속성을 표현하는 신학적 유산임을 밝힌다.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김 회권 | 송실대

1. 서론

흔히 국가적 애가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 89편¹⁾은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의 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은 다윗 및 다윗 왕조 선택과 시온 선택이라는 두 개의 선택 전승으로 구성되어 있다(시편 74, 78, 132편).²⁾ 이 논문의 목적은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의 열개와 그것의 성서신학적 의미를 천착하는 데 있다.

2. 다윗 언약의 역사적 맥락

다윗 언약의 정치신학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삼하 7장 11b-16절에 드러난 다윗 언약의 역사적 유래를 검토해야 한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권세와 영향력이 확장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효했을 것이라는 데 학자들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 왔다.³⁾ 파란만장한

* 이 논문은 송실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짐.

1) 김 정우는 시편 89편을 “왕의 애가시”라고 분류하는데, 38-52절의 공동체적 탄식 어조를 고려해 보면 국가적 애가시편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김 정우, 「시편 주석 II」 (서울: 총신대 출판부, 2005).

2) Ben C.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A Theological Symbol of the Jerusalem Cult* (JSOT supplement series 41), (Sheffield: JSOT Press, 1987), 60쪽; Moshe Weinfeld, “Covenant, Davidic,” *IDBS*, 188-192쪽.

투쟁의 세월을 거친 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권좌에 오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켜 됴으로써 사사 시대에 존재했던 부족 연맹체의 언약과 그의 왕권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삼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이 등장한다.⁴⁾ 다윗 언약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권을 다양하게 정당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삼하 5 - 8장 한 복판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⁵⁾ 삼하 5장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사방 대적들의 마지막 대적인 블레셋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안식’을 가져다주는 야훼 하나님과 그의 지상 대리자 다윗의 군사적 업적을 칭송한다. 삼하 6장은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들이는 다윗의 치적을 말한다. 삼하 7장의 ‘영원한 왕조’ 약속이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과 야훼의 거소(dwelling place)로서 확정될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암시 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⁶⁾ 나단 신탁을 법궤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한 것은 다윗의 영도 아래 이제 막 출범한 다윗 왕정을 그 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의 삶을 규정해 온 시내산 계약 구조들의 틀 안에 집목시키려는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⁷⁾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하 7장 12-16절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 단지 다윗 당대의 다윗 언약임을 넘어 신명기 역사가(‘안식’)에 의하여 승인되었던 후대(BC 7세기 이후)의 유다의 왕정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거나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⁸⁾ 가장 오래된 층으로 간주되는 삼하 7장 1-7절, 11b절, 그리고 16절은 오로지 ‘다윗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야훼의 언약

-
- 3) W. Lee Humphreys, *Crisis and Story*, (Mountain View: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0), 68-69쪽.
 4)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32쪽.
 5) J. W. Whedbee, “On Divine and Human Bonds: The Tragedy of the House of David,” Idem, *Canon, Theology, and O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vard S. Child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48-150쪽.
 6) Choon-Leong Seow, *Myth, Drama, and the Politics of David's Dance*, (Harvard Semitic Monographs 46), (Atlanta: Scholars Press, 1989), 178-203쪽.
 7) W. J. Dumbrell, “The Davidic Covenant,”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39(1980), 40쪽.
 8)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Lund: CWK Gleerup, 1976), 42-47쪽. 크로스는 18-29절을 신명기 역사가 편집층이라고 보는 반면에 메팅거는 22b-26절을 신명기 역사가 편집층이라고 본다.

을 강조하는 반면에, 후대 첨가 구절들은 나단 신탁의 적용 범위를 다윗의 모든 후손 왕들까지 포함시키려는 데 주력한다. 22-24절은 그 위대한 약속을 왕관을 쓴 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 확장하기까지 하는데, 이 절들이 후대에 첨가된 구절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참조 사 55: 3-4).⁹⁾

3.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우가릿 신화 토판들은 구속 역사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종교는 신화에 기반을 둔 고대 근동의 이웃 나라들과의 종교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모든 구약학계의 시도들이 무리한 노력이었음을 드러냈다.¹⁰⁾ 프랭크 무어 크로스(F. M. Cross)는 구약 문헌에서 식별될 수 있는 구원사 이해 도식과 그것에 입각한 정치신학이 실상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우주 기원론적인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문헌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는 세 가지 요소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사 이해와 정치신학이 가나안의 신화적 정치학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증시(證示)한다고 말한다. 첫째, 한 신적인 왕이 혼돈의 신과 전쟁을 벌인다. 둘째, 그 신적인 용사가 승리한다. 셋째, 그 신적인 용사가 왕으로 추대되고 하등 신들로부터 왕궁(성전)을 상납 받는다. 크로스에게 따르면, 이 도식은 일부 구약성경 본문들에서는 아주 순수하고 신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시 29, 89, 93편), 다른 구약성서 본문에서는(시 74, 77, 104편 혹은 사 51: 9-11) 신화적 전승과 역사적 전승의 혼합 양태로 나타난다.¹¹⁾ 크로스는 이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 요소의 혼합이 이스라엘 종교의 특성이라고 본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신화와 역사는 강력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신화는 주로 역사적인 경험에 우주적 초월적 차원을 제공하는 데 봉사하며 아주 드물게는 역사 자체를 용해시켜 버리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¹²⁾

9)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D. M. G. Stalker 옮김), (San Francisco: Harper Publishers, 1962), 310쪽.

10) R. A. Oden Jr., “Myth in the Old Testamen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New York: Doubleday Publishing Company, 1992), 960쪽.

11)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을 신화와 역사의 변증법적 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박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66-189쪽은 본 논문과 거의 유사한 방법론에 바탕을 둔 주석적 연구다.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의 단호하고도 해소되지 않는 긴장”이라는 크로스의 주장¹³⁾을 염두에 두면서 시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을 탐색할 것이다. 여기서 신화란 어떤 상징들을 “과거의 무시간적인 시기에”¹⁴⁾ 일어났던 무제한적 범위와 중요성을 갖는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 크로스는 이스라엘 종교를 급진적으로 비신화화 된 역사라고 해석하는 입장(구속적-역사학과)은 신화적 상징 속에 내포된 위대한 영적 보화들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⁵⁾ 시 89편은 다윗 언약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적절하게 병립시키고 상호 교차시키고 있다. 여기서 다윗 언약은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사적 차원을 넘는 신화적 사건에 착근하고 있다. 우리는 한글개역(개정)판 성경 시 89편 1-37절(영어성경 또한 1-37절; MT 89: 2-38)을 그 안에 병치되어 있는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의 역동적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주석할 것이다. 특히 다윗 언약을 우주적 창조신학적 맥락 안에 접목시킨 시편 89편에 언표된 다윗 왕조의 ‘시원적(始原的) 성격’¹⁶⁾을 주목하고자 한다(특히 시 89: 25-29).

1) 시편 89편의 열개와 메시지

많은 학자들은 시편 89편이 세 개의 다른 시들이 영성하게 결합되어 구성된 시편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김 정우와 제임스 워드(J. M. Ward)는 이런 영성한 편집 가설에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한다. 김 정우는 교차대조 구조(A[1-4절: 다윗 언약 상기시킴]-B[5-18절: 주님의 신실하심 찬양]-A'[19-37절: 다윗 언약 다시 상기시킴]-B'[38-51절: 주님의 신실하지 못함 애통])라는 관점에서 이 시편의 유기적 통일성과 주제적 응집성을 잘 논증한다.¹⁷⁾ 또한 워드는 시 89편 1-4절에서 “이

12) Cross, 90쪽.

13) Cross, viii쪽.

14) B. S. Childs, *Myth and Reality in the Old Testament* (SBT 27), (London: SCM, 1960), 15쪽.

15) Cross, 103-105쪽.

16) Cross, 108쪽.

17) 김 정우, 「시편 주석 II」, 746-747쪽.

시편의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될 하나님의 왕권의 두 가지 양상들, 즉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과 신실성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토대¹⁸⁾가 서두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시편 89편의 언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서 워드는 “26개의 의미심장한 용어들이 아훼 찬가 부분과 신탁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둘 중 어느 하나에서 한 번 이상 나타난다”고 말한다.¹⁸⁾ 주제적으로 보자면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군의 특수한 경우 중 하나가 계약적 사랑(헤세드)과 진실(에무나, 에메트)이다. 아훼의 보좌와 다윗 보좌 둘 다 ‘계약적 사랑’과 ‘신실성’(emeth/emûnā)이라는 터 위에 있다. 이 점이 바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의 핵심이다.

시편 89편은 찬양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된다(시 89: 1-2). 뒤이어 아훼 자신이 친히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을 선언하시는 신탁을 인용하는 시 89편 3-4절이 뒤따라 나온다. 5-18절은 성격상 아훼 찬가로서 아훼를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방패요 왕은 아훼께 속했다”라는 확증적 선언으로 끝난다. 19-37절의 신탁-비전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긴 약속 목록들을 회고적으로 인용한다. 이 단락 바로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엄혹한 대조를 구구절절이 부각시키는 애가와 탄식 어린 불평이 뒤따라 나온다(시 89: 38-45). 이 불평 뒤에는 하나님을 타이르고 책망하는 듯한 대담한 항의 어린 요구와 탄원이 따라나온다(시 89: 46-51). 52절은 시편 제 3권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시 89편을 종료하는 축도 구문이다.¹⁹⁾

다윗 언약은 시 89편 1-4, 5-18, 19-37절 세 단락 모두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들을 결속시키는 주제적인 끈이다.²⁰⁾ 그 중에서도 다윗 언약이 가장 명료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시편기자의 가장 큰 신뢰 속에서 표현되는 곳은 중간 단락이다(시 89: 5-18). 여기서 시적 화자는 아훼께서 다윗과 그의 왕조에게 확실한 약속을 베풀어주셨던 계기가 되었던 예언자적인 계시를 회고하여 다시 요약적으로 진술한다. 시 89편 5-18절²¹⁾은 자신의 왕권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창조 전쟁으로부터 오

18) J. M. Ward, “The Literary Form and Liturgical Background of Psalm LXXXIX,” VT 11 (1961), 322-325쪽.

19) M. E. Tate, *Psalm 51- 100* (WBC),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90), 413쪽.

20) J. Bright, *Covenant and Promis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58쪽.

는 신적 용사를 다룬다. 시 89편 19-37절은 환상 중에 하사된 다윗 언약과 그것의 현실 정치적 함의를 다룬다.

2) 시편 89편 1-37절(MT 2-38)의 사역(私譯)과 주석(註釋)

- 1(MT 2). 내가 야훼의 인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나의 입술은 당신의 진실을 알리리라.
2. 나는 말하리라. “당신의 인애는 영원히 구축되었습니다(bānā).
하늘에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세웠습니다(kûn).”
3. “나는 나의 택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4. ‘나는 네 후손을 영원히 세우리라(kûn).
나는 네 보좌를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굳게 세우리라(bānā).’”

5. 야훼여, 하늘들로 하여금 당신의 경이로운 일들(펠레)을
고백하게 하소서.
거룩한 자들의 회에서 당신의 진실을.
6. 진실로 궁창에서는 누가 야훼와 비기겠으며,
누가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다할 수 있으리까?
7. 거룩한 자들의 회에서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고 두려운 (신),
8. 만군의 야훼여, 누가 당신과 같으리까?
당신의 힘²²⁾과 진실이 당신을 두렵니다.

9. 당신은 바다의 등을 다스리십니다.
그의 파도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 당신은 그것들을 진정시키십니다.
10. 당신은 라합을 부서뜨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의 힘센 팔로 당신은 당신의 적을 홀어버렸습니다.
11. 실로 하늘들도 당신의 것이요, 땅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계도.
12. 북쪽(Zaphon)도 남쪽(Amanus)도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다불과 헤르몬이 당신의 이름을 즐겨 부르겠습니다.
13. 당신은 강한 팔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은 강력하고 당신의 오른 손은 높이 쳐 들려 있습니다.

21) 시 89편 1-37절(MT 2-38절)에는 중대한 본문비평적인 쟁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인칭어미와 관련된 이문들이라서 본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주는 쟁점들은 발견되지 않아 대체로 MT를 그대로 따르나 아주 예외적으로 BHS의 권고에 따른다.

22) BHS 비평장치의 제안대로 MT를 ḥāsnēkā(BDB, 340)로 고쳐 읽는다.

14. 의(체데크)와 공평(미쉬파트)이 당신 보좌의 연단입니다.
인애(헤세드)와 진실(에메트)이 당신 앞에 행합니다.
15. 복되도다. 당신의 나팔소리를 아는 백성들이여,
야훼여 당신의 얼굴 빛 안에서 행진하는 백성들이여.
16. 하루 종일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그들이 존귀케 됩니다.
17.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힘,
당신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뿔이 높아집니다.
- 18(MT 19절). 실로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합니다.
- 19(MT 20). 그 때에 당신은 환상 중에 당신의 인애를 덧입은 자에게²³⁾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었고
한 택함 받은 자를 백성들 가운데서 존귀케 했다.
20. 나는 내 종 다윗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21. 그래서²⁴⁾ 나의 손이 그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kûn)
나의 팔이 그를 강하게 하리라.
22. 어떤 원수도 그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비열한 자도 그를 괴롭게 하지 못하리라.
23. 나는 그의 대적들을 그 앞에서 부서뜨릴 것이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24. 나의 진실(에무나)과 나의 인애(헤세드)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이름을 통하여 그의 뿔이 높이 쳐들려지리라.
25. 나는 그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쳐들게 하며
강들을 향하여 그의 오른 손을 (쳐들게 하리라).
26. 실로 그는 나에게 말하리라.²⁵⁾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23) MT는 “당신의 인애를 입은 자들”로 번역되나 문맥상 마지막 인칭어미는 단수형이 되어야 한다. 많은 중세사본들이 읽은 것처럼 여기서는 단수인칭 어미를 취하여 lahāsīdēkā (your faithful one)로 읽는다.

24) 21절(MT 22절)의 접속사 아쉐르는 결과 혹은 목적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로 이해될 수 있다(so that ... may 혹은 so that ... will)(BDB의 아쉐르 용례를 참조하려면, 83쪽의 두 번째 칼럼을 참조하라: 예. 창세기 11: 7 등). 20-22절은 결국 야훼의 기름부음의 결과가 천하 무적 다윗의 탄생에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구문인 셈이다.

25) 26, 27절에는 3인칭 대명사와 1인칭 대명사가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계약적 결속감을 강조하는 구문이다.

27. 정녕 나는 그를 만아들로 삼으리라
지상 왕들 중 최고(엘리온)의 왕으로.
28. 영원히 나는 그를 인하여 인애(헤세드)를 지키며
나의 언약은 그와 함께 영원히 존속하리라.²⁶⁾
29. 영원히 그의 후손을 세울 것이며
그의 보좌는 하늘의 날들처럼 장구하리라.
30. 비록 그의 후손들이 나의 계명을 버릴지라도
나의 심판이 그들을 동행하지 않으리라.
31. 비록 그들이 나의 법도를 위반할지라도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지라도
32. 나는 막대기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할 것이며
그들의 불의를 역병으로 칠지언정
33. 나는 그들로부터 나의 인애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진실(에무나)을 변개하지 않으리라.
34. 나는 나의 언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발설한 것을 번역치 않으리라.
35. 나는 나의 거룩함으로 일단 맹세하였다.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36. 그의 후손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며
그의 보좌는 태양처럼 내 앞에 있으리라.
37. 달처럼 그것은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kûn)
궁창에서 한 증인은 굳건히 세워지리라.”²⁷⁾

(1) 시편 기자의 야훼 찬가와 그 이유:

다윗 언약을 베푸신 야훼 하나님(사 89: 1-4)

시 89편 1-4절은 ‘영원히,’ ‘확정하다’(kûn), ‘세우다’(bānā), ‘인애’와 ‘진실’ 등의 어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하늘을 증인으로 간접적으로 불러들인 후 시적 화자는 야훼의 인애(헤세드)와 진실을 노래한다. 하늘에 까지 알려진 야훼의 인애와 진실의 결정체는 그가 다윗과 세운 언약이다(시 89: 3-4). 다윗의 보좌가 다윗의 후손에게 존속될 것이라는 야훼의 맹세 어린 약속이 그의 우주적 인애²⁸⁾와 진실의 본질이다. 그런데 나중

26) 아만 동사의 니팔 미완료(ne’emeneth)가 사용되고 있다(37절과 비교)(에무나와 동일어근).

27) 아만 동사의 니팔 미완료(ne’emān)가 정동사로 사용되고 있다(28절과 비교).

28) 시편 89편에서 사용된 헤세드의 의미영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보려면 이 성훈, “개인탄원시에 있어서 찬양으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상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개념,”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91-213쪽(특히 199-200쪽)을 참조하라. 이 성훈은 헤세드와 버리트(계약)의 동의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헤세드가 하나님의 일방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을

에 밝혀지겠지만 이 인애와 진실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 89편 38-51절이 개탄하듯이, 다윗의 후손은 젊은 날 원수와의 전쟁에서 패배 당하고 굴욕을 당했다. 이 시편은 다른 애가의 경우처럼 국가적 환난과 수치를 자기비판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계기로 삼는다. 신명기 신학 근거에 깔려있는 모세 언약과는 달리 다윗 언약은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애가적인 문제 제기의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2) 거룩한 신들의 회(會)가 야훼를 찬양하는 이유 -

혼돈의 바다와 라합을 분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의 승리(시 89: 5-18)

시 89편 5-8절의 야훼 찬가는 왜 거룩한 신들의 회(會)가 비길 수 없고 두려워할 만한 전사이신 야훼를 찬양하는지를 말한다(시 89: 5-8(MT 6-9); 비교. 시 29: 1-2). 하늘의 신적 존재들이 야훼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신들의 회가 보기에도 경이로운 일(펠레)과 진실(에무나)을 야훼께서 과시하셨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일과 진실의 실체는 시 89편 9-14절에서 밝혀진다. 창조 질서를 확정하기 위한 혼돈 세력과의 격렬한 전투에서의 승리와, 그 결과 탄생한 아름다운 세계 질서 창조다. 6절은 비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수위권을 찬양한다. 7절에 따르면 신들의 회중은 야훼의 비길 수 없는 힘과 용력 권능을 놀라며 찬양하고 있다. 8절은 6-7절을 요약하며 힘과 진실이 야훼가 주창하는 가치임을 보여준다. 신들의 회중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야훼의 최근 성취(전쟁 승리)는 특정 가치를 주창하는 성취였음을 보여준다.

시 89편 9-14절은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 결과 야훼가 거룩한 회에서 얻은 수위권을 신화적 색채로 묘사한다. 이 단락은 마르둑과 바알의 승리를 생각나게 하는 용어들을 빈번히 사용하며 야훼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말하고, 야훼가 혼돈의 뱀을 격퇴한 승리 때문에 그 수위권을 획득했다고 환호한다. 5-18절의 구조는 거룩한 회(會)의 찬양, 하나님의 전투와 승리,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떠받쳐진

경계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창조하는 헤세드라는 것이다.

보좌 등극, 그리고 승리의 개선행진과 축하연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이것과 유사한 구조는 우가릿과 메소포타미아 문헌(신화)에서도 입증된다.³⁰⁾ 시 89편 9-14절은 1-8절에서 나오는 시적 화자의 야훼 찬양의 이유와 거룩한 신들의 회(會)가 야훼를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다. 그 이유는 우주 창조를 위한 혼돈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에누마 엘리쉬나 바알 신화처럼 야훼의 우주 창조를 위한 전쟁이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이야기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시편 기자는 우주 창조를 위한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대한 시적인 암시나 은유, 혹은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 야훼의 창조 사역과 그것에 앞선 원시 혼돈 세력과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만 묘사한다. 그러나 이 단락과 시 74편 12-17절, 104편 3-9절, 욥 38장 8-11절, 그리고 사 51장 9-10절(참조 사 17: 12-14; 27: 1-2; 비교 창 1: 1-2)을 함께 읽어보면 구약성경의 창조신학도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발견되는 야훼의 왕권을 확증하기 위한 창조 전쟁 주제는 가나안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둘 다에서 발견되는 우주 창조를 위한 창조주 신의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적 변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³¹⁾

시 89편 9-14절이 밝히고 있듯이 거룩한 신들의 회(會)가 인정하는 야훼의 왕권은 바다와 라합에 대한 그의 승리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9-10절은 왜 야훼의 수위권이 거룩한 회(會)에서 공포되고 승인되는지를 말한다. 야훼는 바다의 등을 다스리시고 거역하듯이 솟구쳐 오르는 파도들을 진정시킨다. 9절은 물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을 한곳으로 유쾌시키는 창 1장 9절을 의인법적으로 재주형하는 것처럼 보인다.³²⁾ 시

29)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Lund: CWK Gleerup, 1982), 69-70쪽. 전투, 왕권 획득, 궁궐 건축으로 이어지는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 대해서는 Cross, 147-163쪽을 보라.

30) E. A. Speiser, "Creation Epic (Enuma Elish)," *AN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61, 68-69쪽. 메소포타미아 문헌을 보려면, *Enuma Elish* I. 60-77 and VI. 57-72을 참조하라. 우가릿 문헌 중 바알을 위한 궁궐 건축을 다루는 본문들(UT no 51=CTA4=KTU 1.4)은 보통 바알과 암의 전투를 다루는 본문들(UT no 137=CTA 21=KTU 1.21 and UT n 68=CTA 2 IV=KTU 1.2IV) 뒤에 배치되어 있다.

31) 시편 89편에서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에 대한 언급과 암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김 정우는 신화와 역사의 변증법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5-18절에 대한 그의 주석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참조 김 정우, 「시편 주석 II」, 752-759쪽. 박 윤선도 시편 89편을 신화적 배경과 전혀 연관짓지 않고 주해한다. 참조 박 윤선, 「성경 주석 시편」(서울: 영음사, 1989), 753-761쪽.

89편 10절은 원시 혼돈의 괴물인 라합을 부쉬 시체로 만들어 버렸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심연(창 1: 2에서 원시 혼돈 바다는 터흠 tēhôm)으로 무생물화 혹은 중성화)인 티아맛의 시체를 갈라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는 마르둑을 생각나게 한다. 라합을 파쇄한 후에 하늘과 땅이 야훼의 통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여기서 창조주 신은 왕으로 묘사되고 홍수(물들) 위에 보좌를 세워 그 위에 착석하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된다(시 89: 10; 참조 시 74: 1-17; 104: 3-9). 한 때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던 그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통치영역 안에 편입된 피조물로 격하되었다(시 89: 12). 홍수(라합)에 대하여 거둔 그의 최근 승리와, 하늘과 땅, 산들과 신적인 거인들을 연속적으로 창조한 그의 강력한 창조 역사에 대한 암시가 이뤄진다(시 89: 12-13). 남과 북, 다볼과 헤르몬은 각각 옛 신들의 이름들을 생각나게 한다. 특히 북을 의미하는 차폰(šāpôn)은 북쪽의 깊은 곳(haršiyôn yarkêtê šāpôn)에 있는 시온을 함의하고 있다(시 48: 2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 89편 13절은 야훼의 강한 팔과 손이 창조의 주(主)동력임을 드러낸다. 야훼의 창조는 물질적인 환경을 만든 공작적인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무질서 세력에 대한 권능 발현을 통한 전투적이고 대항적인 창조임이 암시된다. 그 신은 승리자(시 89: 14)로 묘사되며 그는 의와 공평이라는 보좌 연단 위에 착석해 있다(14절). 이 절은 야훼의 창조 행위의 원천이 무엇인지, 야훼의 승리의 동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의와 공평이다.³³⁾ 의(체데크)와 공평(미쉬파트), 인애(헤세드)와 진실(에메트)의 구현이자 과시가 바로 창조임이 암시된다. 혼돈의 원시 바다와의 전투 후에 이뤄진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연결시키는 시 89편 9-14절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본문이 시 33편 4-7절이다.³⁴⁾ 이 두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성난 파도, 혼돈의 들끓는 원시 바다에 대한 억제 행위 곧, 세상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충만케 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야훼의 태고적 창조 사역을 성례전적으로 구현하는 활동이 바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치드코트

32) Levenson, *Sinai and Zion*, (San Francisco: Harper Publisher, 1985), 108-109쪽.

33) 의와 공도는 가나안 신들(Sidqu and Misoru)의 이름 냄새가 나는 말들이다. 가나안 신들이 야훼의 창조사역에는 보조역할을 한 하등신으로 격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34)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8장 안식과 재창조.”

아도나이)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충성과 진실, 의와 공평의 실현을 통해 매개된다. 의와 공평, 충성과 진실도 계약 함의적인 단어들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충성과 진실, 의와 공평의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사명에 스스로를 속박하신다(비교 창 8: 22). 그런데 혼돈과 파괴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승리는 다윗 왕조의 의와 공평 실행으로 구현된다.³⁵⁾

혼돈 세력에 대한 승리를 거둔 후 있게 되는 야훼의 개선 행진 시, 충성과 진실이 그의 전위 호위병 구실을 한다. 야훼의 승리는 충성과 진실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얼굴(halo) 빛에서 방출되는 빛 가운데서 행진한다(시 89: 15-16). 이제 개선 행진 장면은 승리한 용사가 통치자와 왕으로 공인되는 승리의 축하연 장면으로 바뀐다. 시 89편 17-18절은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축제가 확증해주는 확신을 피력한다. 패배를 모를 것 같은 승리주의적인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고양된 의식으로 시편기자는 다윗의 후계자인 현역 왕에 대한 칭송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한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뿔은 원수대적들 위에 높아진다. 이스라엘의 뿔이 원수들 위에 높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왕이 원수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높아진 이스라엘의 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은 그들의 왕이 나라의 방패로서 하나님께 굳게 결속되어 있다는 확신으로 발전된다. 이 활기차고 고양된 확신은 이 시편의 마지막 애가 단락(시 89: 38-51)에 의해 물론 산산조각날 것이다. 이 단락의 야훼 찬가는 시 89편 전체를 애가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음울한 배경으로 남는다.

(3) 왜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조 언약으로 발전하는가? -

고대 근동의 창조신학(시 89: 19-37)

시 89편 19-37절은 환상 중에 나단(다윗)에게 말하는 야훼의 1인칭 신탁이다. 이 단락은 야훼의 우주적 승리가 다윗의 지상적 승리의 원형 사건이며, 야훼의 창조주적인 승리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하여 다윗 언약이 요청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승리가 하늘의 질서정연

35) F. R. McCurley, *Ancient Myths and Biblical Faith*, (Philadelphia: Fortress, 1983), 149-160쪽; J.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78-99쪽.

한 회복을 의미했는데, 이 ‘하늘’ 상황이 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야훼의 지상 대리자가 필요하였다. 야훼의 창조주적인 승리 찬가 후에 다윗의 선택에 대한 환상이 배치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을 부각시킨다.

시 89편 19절에서 다윗은 인애를 덧입은 자, 용사, 택함 받은 자로 불린다. 20절에 보면 그가 바로 다윗임이 밝혀진다. 시 89편 20절은 사무엘을 통해 은밀하게 일어난 다윗 도유 사건을 회상시키는 장면이다(삼상 16: 12). 야훼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참조 사 9: 5-6; 11: 1-9). 기름부음은 야훼의 통치권 위임을 의미한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야훼의 창조주적 지혜와 권능을 분여(分與)받아 창조주의 창조사역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자다. 시 89편 21-25절은 기름부음의 결과 다윗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음을 증거 한다. 삼상 17장부터 삼하 5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전쟁 승리는 야훼의 기름부음의 결과다. 24절에 따르면 그의 천하무적의 승리 행진은 야훼의 진실과 인애의 후견 속에 이뤄진 성취로서 본질적으로 원시 혼돈 세력에 대한 야훼 승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이다.

시 89편 25절에서 야훼는 물들의 억제 사명을 그의 총애하는 지상 부왕 다윗 계열 왕에게 맡긴다. 야훼는 다윗의 손을 높이 쳐들어 바다와 강들을 제압하게 한다(비교 출 14: 16, 21 바다 위에 손을 쳐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모세). 강들과 바다는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혼돈 세력들로서 창조주 야훼의 원수들이다. 다윗은 창조주 야훼의 창조주적인 활동을 지상에 구현하는 존재인 것이다. 다윗의 높이 쳐들려진 손이 바다의 등을 다스리고 혼돈의 원시 바다를 억제할 것이라는 신적 언질은 시 89편 19-27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행한 일련의 약속들 중 절정의 약속이다. 이 일련의 약속들은 다윗 계열의 왕은 언제나 야훼의 신적 지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적들도 그를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는 야훼의 맏아들이 될 것이며, 그래서 지상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왕이 될 것임을 보증한다. 야훼께서 이처럼 숨막히는 약속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우주적 통치권 장악 획득으로부터 귀결된 것이다. 그의 우주적 통치권 장악은 시 89편 9-14절에서 솟아오르는 바다에 대한 그의 왕적 억제, 라합 분쇄, 그리고 뒤이은 세상 창조라는 일련의 비유를 통해 묘사된다. 이제 우주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시적 전투를 통

해 확정된 야훼의 창조 질서를 유지할 책임은 다윗과 그의 후손 왕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에누마 엘리쉬에서처럼 시편 89편에도 신의 승귀(昇貴)와 그의 지상 대리자가 차지한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사이에 있는 결속이 잠재되어 있다. 다윗은 야훼의 우주적 통치권을 지상에 확장하고 구현하는 지상 대리자 부왕(副王)이다. 이 독특한 관계가 계약(언약)으로 공식화되었는데, 이것은 다윗 후손들과 그의 보좌의 영속성을 보증하는 언약이었다.³⁶⁾

이처럼 야훼의 신화적 전쟁 주제가 야훼의 다윗 선택과 다윗 왕조 선택에 대한 신화적-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야훼께서는 이 신화적인 구조에 입각하여 다윗에게 하나의 영속적인 다윗 왕조를 약속해 주셨다. 당연히 이 영원한 왕조 사상은 사사 시대의 근본 전승을 이루었을 시내산 계약 전승에는 낯선 사상이었다. 보다 오래된 시내산 계약 전승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정 도입은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동시에 종교적 위기를 의미하였다(삼상 8: 6-8).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를 대신하는 중보자인 왕의 백성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이웃 문명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어온 왕정이 이스라엘에 도입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그 자체의 신념체계와 함께 도입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신념체계는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였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하나의 통합적인 종교적 신화, 특히 창조 신화가 왕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분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생명, 창조, 질서(바알, 마르дук)의 신과 혼돈과 파괴의 신, 대개 바다 괴물로 대표되는 신(얌, 티아맛)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 두 신들 사이에(정기적으로 대개는 일년에 한 차례) 벌어지는 전쟁에서 생명과 창조의 신이 승리하여 왕으로 선포된다. 그는 자신이 거주할 궁궐을 짓고 자신의 승리를 기린다. 창조 세계는 다시 질서가 회복된 것이다. 지상 왕은 이 신적인 왕의 대리자로서 부자관계를 형성하며 왕위를 차지한다. 이 때 지상 왕에게 부여되는 특별 책임이 지상에 공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이었다. 하늘 신의 지상대리자로서 지상의 왕은 기본적으로 우주 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관리자요 수호자였던 것이다. 영원한 왕

36)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22-23쪽.

조를 약속한 다윗 언약의 정치신학은 바로 이런 신화적인 배경에서 온전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시 89편 26-37절은 이런 다윗의 창조주적 활동, 즉 바다와 강들의 제압 활동이 다윗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 대대로 계승될 것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다윗 왕조에 속한 모든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확대된다(사 9: 5-6; 11: 1-9; 렘 21: 12; 22: 15-16).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어도 형식상으로 이 언약의 확장이 다윗 왕조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의하여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시 89편 26-27절은 다윗과 야훼가 부자 관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한다(시 2: 7).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엘 엘리온이듯이, 다윗은 지상 열왕들 위에 뛰어난 엘리온으로 선포된다.³⁷⁾ 28절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적 투신은 영속될 것임을 강조한다. 29절은 이 야훼의 영속적인 헤세드가 다윗의 위(位)를 차지할 모든 후손 왕들에게로 확장될 것이다. 다윗의 보좌는 하늘의 날처럼, 즉 하늘이 존속하는 한 장구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 89편 31-35절은 28-29절을 예시한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계약적 투신이 영속할 것이라는 선언이 이 단락에서 예시된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 계명, 계약(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 단어들은 시내산 언약 일체를 가리키는 말)을 지키는 데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막대기로 징계하고 역병으로 칠지 언정(삼하 24장; 대상 21: 1-27)(시 89: 30-33), 당신의 인애를 다윗 가문으로부터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반역과 가변성, 실패와 불신실성이 “인애와 진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결단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범한 죄악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당신의 인애와 진실을 철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의 보좌는 태양처럼 장구할 것이다(시 89: 36). 그것은 달처럼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kûn), 궁창에서

37) Roberts, “In Defense of Monarchy,” Patrick D. Miller(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87), 387독.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결국 이 단락에서 쟁점은 왕정 자체가 아니라 왕조의 영속성 문제다.³⁸⁾ 삼하 7장뿐만 아니라 시 89편 밑에 깔려있는 주제도 왕위 계승 문제, 즉 어떤 가문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윗 언약이 방지하려는 것은 다윗 왕가가 왕권을 상실하는 상황³⁹⁾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 상실의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시 89편 1-37절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합법성), 왕조의 영속성, 그리고 정치적 체계모니, 이 세 가지를 확약해 준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조의 정치학은 정치신학일 수밖에 없다. 다윗 왕조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실과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계약준수 의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애와 진실은 인간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덕성과 자질을 요구한다. 다윗 언약의 정치신학이 지배하던 유다 왕국의 예언자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등이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 인애와 진실을 비롯한 계약적 의무 준수(공평과 의의 실행)를 촉구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 89편 1-37에서 하나님의 창조 전투와 왕 중 왕으로서의 왕위 등극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본다. 하늘의 어전회의 회중 한 가운데 보좌 위에 착석한 하나님과 동시에 혼돈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⁴⁰⁾

삼하 7장 11-16절과 비교해 볼 때 시 89편 1-37절은 삼 7장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두 가지 추가적 사실들을 천명한다. 첫째, 다윗 왕조의 영속성은 창조 질서에 터하고 있다는 선언이다(시 89:36-37). 둘째, 25절이 밝히고 있듯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 왕은 공평과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지상 대리자라는 점이다. 공평(미쉬파트)과 정의(체데크)를 세워야 하는 왕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

38) Levenson, "The Davidic Covenant and its Modern Interpreters," *CBQ* 41 (1979), 205-229 쪽.

39) Levenson, *윗글*, 218쪽. 레벤슨에 따르면 시편 78편이 비록 다윗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다윗 선택과 왕위 등극을 다루고 있으며 실상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 구속사의 절정으로 본다.

40) Mettinger, *In Search of God: The Meaning and Message of the Everlasting Names*, (F. H. Cryer 옮김),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98-99쪽.

정된다는 점이다. 시내산 언약이 모든 백성들에게 계약의 기본 조항의 준수를 요구한다면, 다윗 언약은 백성들의 언약적 우두머리인 왕에게 공평과 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⁴¹⁾ 이로 보건대,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위에 터를 잡은 언약이지만, 인간 파트너의 계약 준수 의무를 폐기하는 언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 파트너의 계약 준수 여부가 계약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못되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에게는 모종의 언약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⁴²⁾

(4) 신화적 과거와 역사적 현실 사이의 인식론적 부조화 -

다윗 언약의 신화적 토대와 그 의의

그러나 이 다윗 언약에 입각한 다윗 왕조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다윗의 후손들은 창조 질서의 적인 혼돈의 바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가?(비교 시 93편) 왕조의 영속성을 보증한 하나님의 언질은 지켜지고 있는가?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이 보여주듯이(시 89: 38-51), 현실은 다윗 언약의 시효가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시편 기자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탱시키겠다는 신적 언질을 마무리하자마자, 이것(언질)에 의하여 크게 놀라며 순식간에 기쁨을 잃어버린다(시 89: 38-40, 50).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벤슨이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통한 창조 설화는 야훼와 그의 약속들이 신용을 잃은 것으로 보이던 때에 생겨났거나 더욱 자주 회고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돈과의 투쟁 신화에 대한 호소는 변증법적인 대항 진술의 형식으로 역사적 사건들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신화적 진실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역사적 경험에 신화적인 다윗 언약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허무주의의 심연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구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고취시킨 신앙적 패기일 수도 있다. 결국 신화에 대한 시편

41)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JBL* 92 (1973), 343쪽. "특히 시편 89편에서 다윗 혹은 다윗 언약의 반열에 선 왕은 보통 역사적 인간의 차원을 훨씬 더 높이 초월한 위치에 배치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 영역에 위치되어진다."

42) Levenson, *Sinai and Zion*, 99쪽. 레벤슨은 다윗과 그의 왕실은 시내산 언약의 기본 조항들의 준수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라고 논증한다. 시편 89: 31-33의 전제는 그들도 여전히 시내산 언약의 규정들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이다.

기자의 호소는 하나님의 태고적 위대한 구원행위가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신앙 행위인 셈이다. 야훼의 구원 행위에 대한 흥분에 찬 확언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었다. 다윗 언약에 대한 호소와 기억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윗 언약은 신화적 언약 의례들을 촉발시켰던 모종의 역사적 경험들(왕정 도입과 다윗 제국의 등장, 그리고 몰락과 쇠퇴 등)의 충격 아래 신화적 과거이라는 원형으로부터 출현한 모형물이었기 때문이다.⁴³⁾

여기서 시 89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성을 호소하면서 자신 당대의 종교적 도덕적 성취에 호소하는 대신 다윗 언약의 신화적 토대를 상기시키는 점은 아주 인상적이다. 그는 다윗 언약의 인간 파트너는 후손이 아니라 조상 다윗이며, 자신을 포함한 다윗의 후손들은 중심 조건의 바깥에 있는 추가물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오로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 하는 징표로만 언급될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동맹이며 어떤 도덕적 분투도 이 언약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요청되지 않는다.⁴⁴⁾ 시내산 조약(언약)과는 달리 여기서는 도덕과 인간적 신실성 성취 여부는 더 이상 초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실에게 독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요구도 이미 그것의 창건자에 의하여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윗 언약은 일종의 '왕적 하사 언약'으로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여러 변동 사항들을 초월하여 유효한 약속이다. 오히려 이 언약은 역사의 변동 아래서 흐르는 상수적 요소에 주목한다. 그 초역사적 상수는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 대한 전적인 투신이다. 시내산 언약에 입각한 시험들이 인생의 불확실성과 따라서 부단히 갱신되어야 할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윗 언약은 확실히 불가침적인 신적 항속성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하

43) L. Clapham, *Mythopoeic Antecedents of the Biblical World-View and Their Transformation in Early Israelite Thought*, F. M. Cross(ed.),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76), 108-119쪽.

44) Levenson, *Sinai and Zion*, 110쪽. 레벤슨은 와인펠트의 다윗 언약의 양식사적 연구결과를 언급한다. 와인펠트는 다윗 언약을 시내산 언약의 원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근동의 종주조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왕적 하사언약'(covenant of grant)이라고 분류했다. 와인펠트에 따르면 이 왕적 하사 언약은 이미 실행된 충성과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언약이며, 종주조약은 앞으로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장치다.

나눔께서는 부패한 다윗 계열의 왕들을 부단히 참으신다(왕하 8: 18; 15: 4-5; 19: 34).

4. 결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언약 안에서 왕조(국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드러지는, 백성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속적인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다윗 언약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다윗 왕권은 정치적인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바벨론 유수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포로기 이후 다윗 왕조를 복원시키려는 시도들은 호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삼하 7장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왕하 25장은 다윗의 후손이 있을 그 보좌를 비워둔 채 황망히 종료된다. 위대한 다윗의 다윗보다 더 위대한 아들 아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면서 열왕기하는 미완의 약속으로 허공 중에 걸려있다. 파산된 유다 왕국의 역사도 다윗 언약이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증명할 사태가 아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파트너의 협력을 산정해서가 아니라 엄숙한 맹세로 자신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결박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당사자에게는 어떤 조건들의 성취 부담도 주지 않는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 다윗 언약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시는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⁴⁵⁾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상통치를 위한 영원한 대리자로 다윗과 다윗 왕조를 선택했다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 주장이야말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메시아 대망 사상의 발아 지점이 되지 않았던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시들은 다윗 왕조의 왕궁 제의 안에 투사된 이상적인 왕의 초상화를 반영하고 있다.⁴⁶⁾ 그런 초상화들은 신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더러는 다른 문화들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이 신화적 요소들도 예수

45) 다윗적인 전투적인 메시아니즘의 태동에 대한 종교사학파적인 연구를 참조하려면, 엄 원식, "다윗의 전기(傳記)에 대한 분석적 비판-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2000년 10월), 109-135쪽을 보라. 엄원식은 다윗적 메시아니즘의 뿌리를 신화적 배경에서 찾지 않고 고대 근동의 전투적 메시아 사상들에서 찾는다. 사무엘서의 다윗의 메시아적 활동은 정치적 고안물이라고 본다.

46) Hae-Kwon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dissertation 2001), 237-273쪽.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조의 사실상 실패는 주전 586년에 일어났으나, 영적으로 보면 삼하 7장 13절(다윗의 후손)을 신약 기독교론의 관점으로 읽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다윗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실패, 그리고 죄악을 초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송축하는 위대한 신학적 자산인 셈이다.⁴⁷⁾

6. 참고문헌

- 김 정우, 「시편 주석 II」 (서울: 총신대 출판부, 2005).
 박 윤선, 「성경 주석 시편」 (서울: 영음사, 1989).
 박 중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전승,”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66-189쪽.
 엄 원식, “다윗의 전기(傳記)에 대한 분석적 비판-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09-135쪽.
 이 성훈, “개인탄원시에 있어서 찬양으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상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개념,”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91-213쪽.
 Bright, J., *Covenant and Promis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Childs, B. S., *Myth and Reality in the Old Testament* (SBT 27), (London: SCM, 1960).
 Clapham, L., “Mythopoeic Antecedents of the Biblical World-View and Their Transformation in Early Israelite Thought,” F. M. Cross(ed.),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76), 108-119쪽.
 Clifford, R. J., “Psalm 89: A Lament over the Davidic Ruler’s Continued Failure,” *Harvard Theological Review* 73 (1980), 38-47쪽.
 Coogan, M. D.,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78).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Dumbrell, W. J., “The Davidic Covenant,”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39 (1980), 40-47쪽.
 Humphreys, W. Lee, *Crisis and Story*, (Mountain View: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0).
 Kim, Hae-Kwon,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dissertation, 2001).
 Levenson, Jon D., “The Davidic Covenant and its Modern Interpreters,” *CBQ* 41 (1979), 205-219쪽.
 _____,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47) 김 정우는 이 시편의 제의적 배경을 유다 왕국의 신년축제(포로기 이전)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열망하는 포로기 이후의 활동에서 찾는다. 김 정우, 「시편 주석 II」, 749쪽.

- Omnipot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Sinai and Zion*, (San Francisco: Harper Publisher, 1985).
- McCurlley, F. R., *Ancient Myths and Biblical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Mettinger, T. N. D., *In Search of God: The Meaning and Message of the Everlasting Names*, (F. H. Cryer 옮김),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_____, *King and Messiah*, (Lund: CWK Gleerup, 1976).
- _____, *The Dethronement of Sabaoth*, (Lund: CWK Gleerup, 1982).
- Oden Jr. R. A., "Myth in the Old Testamen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New York: Doubleday, 1992), 956-960쪽.
- Ollenburger, Ben C.,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A Theological Symbol of the Jerusalem Cult*, (JSOT ss 41), (Sheffield: JSOT Press, 1987).
- Roberts, J. J. M., "In Defense of the Monarchy," P. D. Miller Jr.(ed.), *Ancient Israelite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87), 377-396쪽.
- Seow, Choon-Leong, *Myth, Drama, and the Politics of David's Dance* (HSM 46),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Speiser, E. A., "Creation Epic (Enuma Elish)," *AN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61-69쪽.
- Tate, M. E., *Psalms 51-100*, (WBC), (Waco: Word Books, Publisher, 1990).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I*, (D. M. G. Stalker 옮김), (San Francisco: Harper, 1962).
- Ward, J. M., "The Literary Form and Liturgical Background of Psalm 89," *VT* 11 (1961), 322-325쪽.
- Whedbee, J. W., "On Divine and Human Bonds: The Tragedy of the House of David," G. M. Tucker/D. L. Peterson/R. R. Wilson(eds.), *Canon, Theology, and O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ward S. Child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40-150쪽.
- Weinfeld, Moshe, "Covenant, Davidic," G. A. Buttric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 (Nashville, TN: Abingdon Cokesbury press, 1951), 188-192쪽.

검색어

다윗 • 다윗 언약 • 신화와 역사 • 시 89편 • 에누마 엘리쉬
 바알 신화 • 혼돈 전쟁

투고일: 2008년 4월 10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The Political Theology of the Davidic Dynasty embedded in Psalm 89

Hae-Kwon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plore the political theology of the Davidic covenant as embedded in Psalm 89 with special focus o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yth and history. For this end the present essay makes an exegetical inquiry into Psalm 89 with a religion-of-history approach to the tension lying between the history of the Davidic covenant and the ancient Near Eastern creation myths.

Starting from the assumption that characteristic of the religion of Israel is a perennial and unrelaxed tension between the mythic and the historical, the present essay argues that Israelite religion is continuous with the religions of Israel's neighbors, and hence continuous with a mythological tradition. I agree with F. M. Cross when he argues for the commonality between the Davidic kingship and the central, cosmogonic myth of the Canaanites in threefold areas: (1) a divine warrior battles against a god of chaos; (2) the divine warrior is victorious; and (3) the divine warrior becomes king and receives a royal palace. Cross observes that this pattern appears in some Old Testament texts in its pure,

mythical form.

Through this exegetical and comparative inquiry of the Davidic covenant in Psalm 89, the present essay offers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e Davidic Covenant as an intersection of myth and history. Finally, the present essay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theology of the Davidic dynasty can be best understood in the dialectical dynamic between history and myth, eventually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s a community who had survived many historic catastrophes in expectation of the coming of a Davidic messiah to take the vacant throne of David.

Keywords

David
the Davidic Covenant
Myth and History
Psalm 89
Enuma Elish
the Baal Myth
the Chaoskampf